
주요국 예산안 - 일본

2022. 4.

본 보고서는 2021년 12월 24일에 일본 재무성(財務省)이 발표한
회계연도 2022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자료를 참고하기 바람

연구책임자

김우현 센터장
송경호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

강민채 선임연구원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 참여자들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목 차

1. 경제 및 재정전망	1
가. 경제전망	1
나. 재정전망	3
2. 예산기조	5
3. 예산안 내용	8
가. 세입	8
나. 세출	12
4. 주요 재정정책	16
가. 경제성장	16
나. 안전·재해 예방 및 사회보장	18
다. 지역 발전·창생	19
라. 예산 효율화 및 질 향상	22

일본 예산 편성 개요

□ FY1)2022: 2022.4.1 ~ 2023.3.31.

□ FY2022 예산편성 일지

- 2021.7.7 FY2022 예산 개산 요구(概算要求)²⁾ 기준 발표
- 2021.9.7. FY2022 일반회계 개산 요구(要求)액 및 요망(要望)³⁾액 발표
- 2021.11.26. FY2021 제 1차 추경예산안 발표
- 2021.12.24. FY2022 예산 정부안 발표(2022.1.17. 관련 추가 발표(특별회계 등))
- 2022.3.22. FY2022 예산 정부안 확정

□ 출처

일자	발표 내용
2021.7.7	FY2022 예산 개산요구(概算要求) 기준 발표 令和4年度予算の概算要求に当たっての基本的な方針について
2021.9.7.	FY2022 일반회계 개산요구액 및 요망액 발표 令和4年度一般會計概算要求・要望額等
2021.11.19.	“코로나 극복·신시대를 개척하기 위한 경제대책” 발표 コロナ克服・新時代開拓のための経済対策
2021.11.26.	FY2021 제 1차 추경예산안 발표 令和3年度補正予算案
2021.12.24.	FY2022 예산 정부안 발표 令和4年度予算政府案
2022.1.17.	FY2022 예산 정부안 관련 추가 발표(특별회계 등) 特別會計について (令和4年1月17日追加)

1) Fiscal year 회계연도

2)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일본 행정기관인 각 부(府)·성(省)이 내년도 정책집행에 필요한 예산을 제 무성에 제출하는 것을 말함. 매년 8월말이 기한이나, 2022년 예산안은 COVID-19 영향으로 1개월 연장하여 2021년 9월말에 마감함

3) 일반회계 세출에서 이차지급비와 채무상환비를 제외한 후 '지방 교부세 교부금 등', '연금의료 등', '재량적 경비', '의무적 경비' 네 개 항목으로 나누고, 항목별로 전년도 당초 예산 규모를 기준으로 '지방 교부세 교부금 등 - 유지', '연금·의료 등 - 자연증가분만 반영', '재량적 경비 - 일정 비율(10%) 삭감', '의무적 경비-재량적 경비 이전 제외' 조치를 통해 요구(要求)액 기준을 설정함

요망(要望)금액은 '재량적 경비' 삭감액(전년도 당초 예산액 10%)의 세 배 한도와 '의무적 경비'에서 재량적 경비로의 전환액의 3배 범위 내에서 '새로운 일본을 위한 우선 과제 추진'(특별프레임)과 관련된 경우 요망할 수 있는 금액을 의미

(참의원(상원), 意味合いが変わる概算要求基準, 経済のプリズム, 180호, 2019년 9월, 검색일자: 2022.3.24.)

_____, 予算編成過程における「概算要求基準」, 2019년 8월,

https://www.sangiin.go.jp/japanese/annai/chousa/keizai_prism/backnumber/h31pdf/201917901s.pdf검색일자: 2022.3.24.)

□ 일본 경제현황4)

- 환율: 100엔 = 약 0.911달러 (2021년도)⁵⁾
- 경제규모: 2021년 경상GDP 5조 1,031억 달러(2021년 실질GDP 성장률 2.4%)
- GDP 대비 수출입 규모의 비율(명목): 2019년 기준 34.9%
- 인구: 1억 2,537만명 (2021년 기준)

[그림 1] 일본 실질GDP 성장률 및 인구 추이

(단위: 백만명, %)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October 2021, 검색일자: 2022.3.10

4)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October 2021,
[https://www.imf.org/en/Publications/WEO/weo-database/2021/October/select-countries?grp=119&sg=All-countries/Advanced-economies/Major-advanced-economies-\(G7\)](https://www.imf.org/en/Publications/WEO/weo-database/2021/October/select-countries?grp=119&sg=All-countries/Advanced-economies/Major-advanced-economies-(G7)), 검색일자: 2022.3.10.
 WITS, Trade statistics, <https://wits.worldbank.org/CountryProfile/en/jpn>, 검색일자: 2022.3.10.

5) OECD Data, Exchange rates (National currency units/US dollar),
<https://data.oecd.org/chart/6DLC>, 검색일자: 2022.3.10.

<최근 재정 및 경제동향 일지>

일시	주요 정책 동향	KIPF 발간 참고자료 ⁶⁾
2021.6.18.	내각부, '경제 재정의 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2021' 각의 결정	2021년 상반기 재정동향
2021.7.7.	FY2022 예산안 개산요구 기본방침 발표	2021년 하반기 재정동향
2021.7.30.	재무성, FY2020 결산개요 발표	
2021.9.7.	FY2022 일반회계 개산요구액 발표	
2021.11.19.	내각부, 「코로나 극복·신시대를 개척하기 위한 경제대책」 발표	
2021.11.26.	FY2021 제 1차 추가경정예산 발표	
2021.12.3.	FY2022 예산편성의 기본방침	-
2021.12.24.	FY2022 정부예산안 발표	2021년 하반기 재정동향

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KIPF 재정동향,
<https://www.kipf.re.kr/cfa/Trend/FiscalPolicies/kiTrend/Overseas/ALL/list.do?serialNo=0>

<요약>

□ 경제 및 재정전망

- (경제전망) 재정지원과 함께 소비 회복과 설비 투자에 따른 민간수요 주도 성장, '성장과 분배 선순환'이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고, 2022년도 실질GDP 성장률은 3.2%, 명목GDP 성장률은 3.6%로 전망
- (재정수지) 2022년도 일반회계 기초재정수지는 전년도의 -19.3조엔 적자 대비 적자 폭이 35.9% 감소한 -13.0조엔을 나타낼 전망
- (국가채무) 2022년도 보통국채 잔고는 전년 대비 2.2% 증가한 1,026조엔을 나타낼 전망이며, 세출 대비 국채의존도는 전년 대비 6.6%p 감소한 34.3% 전망

□ 예산기조

- 2022년 예산은 코로나 대유행 대응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통한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을 목표로 함

□ 예산안 내용

- (세입) 회계연도 2022년 예산안의 세입규모는 전년 당초 예산 대비 0.9% 증가한 107조 5,964억엔으로 전망
- (세출) 회계연도 2022년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전년 당초 예산 106조 6,097억엔 대비 0.9% 증가한 107조 5,964억엔으로 편성됨
 - FY2021 1차 추경(31조 5,627억엔)을 2021년 11월에 편성하여 「코로나 극복·신시대를 개척하기 위한 경제대책」을 뒷받침하고 FY2022 당초 예산과 일체적으로 끊임없는 재정정책을 실행하고자 함

□ 주요 재정정책

- (경제성장) 거래 적정화 대책과 사업재생·사업승계 지원, 생산성 향상 지원을 위한 디지털화 등과 성장형 중소기업 등 연구개발 지원
- (사회보장)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지속하며, 2022년 진료보수·약가 개정 등과 간호, 장애 복지, 보육 등 처우 개선을 계획

1. 경제 및 재정전망

가. 경제전망

- (총평)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이동제한조치 등의 단계적 완화로 최근 경제회복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그러나, 공급 제약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경기하방리스크 및 코로나19 대유행의 영향을 주시할 필요
 - (성장률) 2022년도 실질GDP 성장률은 3.2%, 명목GDP 성장률은 3.6%로 전망
 - 재정지원과 함께 소비 회복과 설비 투자에 따른 민간수요 주도 성장, '성장과 분배 선순환'이 실현될 것으로 예상
 - (민간최종소비지출) 경제사회활동이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고, 고용·소득 환경의 개선으로 민간최종소비지출은 전년 대비 4.0% 증가
 - (민간주택투자) 완화적 금융 조건에서 보험세를 보여 전년 대비 약 0.9% 증가
 - (민간기업설비투자) 경제대책 효과와 디지털·그린 전환 촉진 등에 따라 전년 대비 약 5.1% 증가
 - (정부지출) 과거 경제대책들의 시행, 코로나 극복·신시대 개척을 위한 경제대책에 따른 정부지출, 사회보장관계비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일반세출 0.7% 증가(실질 GDP 대비 공적수요 기여도는 0.0% 전망)
 - (해외수요) 세계경제의 회복에 따라 증가할 전망(해외수요의 실질 경제성장률 기여도는 전년 대비 약 0.2% 전망)
 - (노동·고용) 경제사회활동이 정상화되는 가운데 2022년 고용자수는 전년 대비 0.4%(5,981만명→6,004만명) 증가하고, 완전실업률은 전년의 2.8% 대비 0.4%p 감소한 2.4%로 전망됨
 - (광공업 생산) 국내·외 경제회복에 따라 전년 대비 약 5.0% 증가가 전망됨
 - (물가) 경제회복과 더불어 전년 휴대전화 통신료 인하⁸⁾의 영향이 감소하면서 전
- 7) 내각부, 「2022년도 경제재정운영의 기본방침」(令和4年度の經濟見通しと經濟財政運營の基本的態度), 2021.12.23., (<https://www5.cao.go.jp/keizai1/mitoshi/mitoshi.html>)
재무성, 令和4年度予算のポイント, 2021.12.24.,
https://www.mof.go.jp/policy/budget/budger_workflow/budget/fy2022/seifuan2022/01.pdf
- 8) 2020년 일본 정부는 3대 대형 이동통신사의 과점을 지적하고, 기업 통신사업 이익률은 증가하고 있으나, 휴대통신 요금(이동통신 대기업 3곳의 종량제 음성통화료는 3분당 120엔(소비세 별도))이 10년이상 바뀌지 않은 점에서 가격인하를 요청했고, 2021년 3월 이동통신사들은 보다

년 대비 약 0.9% 상승할 것으로 전망

○ GDP디플레이터는 전년 대비 0.4% 상승 전망

□ (국제수지) 소득수지⁹⁾ 흑자가 계속되는 가운데 경상수지 흑자는 보합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명목GDP 대비 경상수지 비율 2.8%)

<표 1>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 전년대비 %, 조엔)

구분	2020	2021	2022	전년대비증가율					
	실적	추정	전망	2020		2021		2022	
	(명목)	(명목)	(명목)	(명목)	(실질)	(명목)	(실질)	(명목)	(실질)
국내총생산 (조엔)	535.5	544.9	564.6	-3.9	-4.5	1.7	2.6	3.6	3.2
민간최종소비지출	286.9	293.2	307.3	-5.5	-5.5	2.2	2.5	4.8	4.0
민간주택투자	19.8	21.0	21.5	-7.3	-7.8	5.6	-0.5	2.8	0.9
민간기업설비투자	84.5	88.3	93.4	-7.9	-7.5	4.5	2.5	5.8	5.1
민간재고변동(기여도) ^{주1}	0.1	0.4	0.6	(-0.2)	(-0.2)	(0.1)	(0.0)	(0.0)	(0.0)
재화·서비스 수출	84.1	101.6	109.6	-12.1	-10.5	20.8	11.4	7.9	5.5
(공제) 재화·서비스수입	84.5	107.5	116.5	-13.4	-6.6	27.2	7.4	8.4	4.1
내수기여도				-4.2	-3.9	2.8	2.0	3.8	3.0
민간수요기여도				-4.8	-4.7	2.2	1.7	3.7	3.0
공적수요기여도				0.6	0.8	0.6	0.2	0.1	0.0
외수기여도				0.3	-0.7	-1.0	0.6	-0.2	0.2
국민총소득(GNI)	554.7	566.9	589.0	-4.2	-3.9	2.2	1.4	3.9	3.1
노동·고용									
노동력인구	6,863	6,871	6,873		-0.5		0.1		0.0
취업자수	6,664	6,681	6,705		-1.0		0.3		0.4
고용자수	5,962	5,981	6,004		-1.0		0.3		0.4
완전실업률 (%)	2.9	2.8	2.4						
생산 (%)									
광공업생산지수 (증감률)	-9.5	5.7	5.0						
물가 (%)									
생산자물가지수 (변화율)	-1.4	6.5	2.0						
소비자물가지수 (변화율)	-0.2	-0.1	0.9						
GDP디플레이터(변화율)	0.7	-0.8	0.4						
국제수지 (조엔)									
무역·서비스수지	0.2	-5.3	-5.8						
무역수지	3.9	-1.4	-3.7						
수출	68.4	83.8	88.7		-8.4		22.5		5.9
수입	64.4	85.2	92.4		-13.3		32.3		8.5

저렴하게 통신을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를 출시함

9) 경상수지는 무역수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경상이전수지로 구성되고, 소득수지는 국외에서 발생한 국내 소득의 수령과 국내에서 발생한 외국으로의 소득 지급의 차액으로 임금, 투자소득(이자, 배당금) 등 수취와 지급의 차이를 의미
(일본 경제산업성, 我が國における所得収支の動向(일본의 소득수지 동향), 2013, p.2, https://www.meti.go.jp/report/tsuhaku2013/2013honbun_p/pdf/2013_03-03-03.pdf, 검색일자: 2022.4.15.)

경상수지	16.3	13.6	15.2
명목GDP대비 경상수지 (%)	3.0	2.5	2.8

주: ()안 수치는 GDP 성장 기여도를 의미

자료: 내각부, 「令和4年度の経済見通しと経済財政運営の基本的態度」, p1, 2021.12.23.,

<https://www5.cao.go.jp/keizai1/mitoshi/2021/r031223mitoshi.pdf>

나. 재정전망¹⁰⁾

□ (재정수지) 2022년도 일반회계 기초재정수지*는 전년도의 -19.3조엔 적자 대비 적자 폭이 35.9% 감소한 -13.0조엔을 나타낼 전망(<표 2> 참고)

* 일반회계 기초재정수지는 (조세수입+기타수입)-(세출총액-채무상환액-이자비용)로 재정통계 국제기준인 국민계정통계(SNA: System of National Accounts) 중앙정부 기초재정수지와는 다름

○ (세입) 2022년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107조 5,964억엔¹¹⁾이고, 조세 및 기타수입은 전년 대비 12.1% 증가한 70조 6,350억엔으로 추계됨

○ (세출)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전년 대비 0.9% 증가한 107조 5,964억엔(GDP 대비 19.1%)으로 전망되며, 일반회계 세출 중 국채비*를 제외한 기초재정수지 대상경비**는 전년대비 0.4% 증가한 83.7조엔(GDP 대비 14.8%)으로 전망

* 채무상환비와 이자지급비로 구성

** '일반회계 세출총액' 에서 채무상환비와 이자지급비를 제외한 것을 의미

○ (국채) 세출 대비 국채의존도는 전년 대비 6.6%p 감소한 34.3%로 전망

□ (국가채무) 2022년도 보통국채 잔고는 전년 대비 2.2% 증가한 1,026조엔을 나타낼 전망([참고1] 일본 보통국채 참고)

○ GDP 대비 보통국채 잔고는 전년 대비 2%p 감소한 181.8%로 전망되며, 지방채 등을 포함할 경우 전년 대비 4%p 감소한 220% 규모로 전망

10) 재무성, 我が國の財政事情, 2021.12.,

https://www.mof.go.jp/policy/budget/budger_workflow/budget/fy2022/seifuan2022/04.pdf

_____, 令和4年度予算のポイント, 2021.12.24.,

https://www.mof.go.jp/policy/budget/budger_workflow/budget/fy2022/seifuan2022/01.pdf

11) 일본은 균형 예산을 편성하는 국가로 경상수입으로 정부의 지출을 충당하여 세입과 세출을 동일하게 편성함

<표 2> FY2022 주요 재정지표(일반회계)¹⁾

(단위: 조엔, %)

구분	FY2016	FY2017	FY2018	FY2019	FY2020	FY2021	FY2022 (정부안)
일반회계 세출							
일반세출 ²⁾	57.8	58.4	58.9	62.0	63.5	66.9	67.3
기초재정수지 대상경비 ³⁾	73.1	73.9	74.4	77.9	79.3	82.3	83.7
GDP 대비 %	13.6	13.5	13.5	14.0	13.9	14.7	14.8
일반회계 세출총액	96.7	97.5	97.7	101.5	102.7	106.6	107.5
GDP 대비 %	17.8	17.5	17.6	18.2	19.2	19.6	19.1
일반회계 세입							
조세	57.6	57.7	59.1	62.5	63.5	57.4	65.2
GDP 대비 %	10.6	10.4	10.6	11.2	11.9	10.5	11.6
기타수입	4.69	5.37	4.94	6.30	6.59	5.56	5.43
조세 + 기타수입	62.3	63.1	64.0	68.8	70.1	63.0	70.6
GDP 대비 %	11.4	11.4	11.5	12.3	13.1	11.6	12.5
국채발행 수입	34.4	34.4	33.7	32.7	32.6	43.6	36.9
세입총액	96.7	97.5	97.7	101.5	102.7	106.6	107.5
국채잔고							
국채잔고	830.6	853.2	874	886.7	946.6	1,044	1,026
GDP 대비 %	152.4	153.5	157.1	159.1	176.8	184.3	181.8
국가 및 지방 장기채무잔고							
국가 및 지방 장기채무잔고	1,056	1,077	1,095	1,106	1,165	1,222	1,243
GDP 대비 %	194	194	197	198	218	224	220
기초재정수지 ⁴⁾	-10.8	-10.8	-10.4	-9.1	-9.2	-19.3	-13.1
국채의존도(%) ⁵⁾	35.6	35.3	34.5	32.2	31.7	40.9	34.3

주: 1) 당초예산기준

2) 일반세출은 '일반회계 세출총액'에서 '국채비'와 '지방교부세교부금'을 제외한 것을 의미

3) 기초재정수지 대상경비는 '일반회계 세출총액'에서 이자지급비와 채무상환비를 제외한 것을 의미

4) 일반회계 기초재정수지=조세 +기타수입-기초재정수지 대상경비

5) 국채의존도=국채발행액/일반회계세출총액

자료: 재무성, 「我が國の財政事情(令和4年度予算政府案)」, 2021.12., pp. 6, 9~10

2. 예산기조

□ FY2022 예산편성의 기본방침 (2021.12.3.)¹²⁾

- 2022년 예산은 코로나 대유행 대응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통한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을 목표로 함
 - (코로나 대응) 의료 및 검사체계 확보, 변이를 포함한 새로운 위험 대비를 위해 백신·치료약 등의 연구개발, 고용·사업·생활에 대한 지원 등을 추진
 - (경제 재건) 경제·재정 운영의 최대 목표인 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해 위기 대응에 필요한 재정지출은 주저없이 지원하면서 재정건전화 노력도 지속함
 - (성장) ①과학기술국 실현, ②지방을 활성화하고 세계와 연결하는 '디지털 전 원도시 국가구상', ③경제안전보장의 3대 핵심 성장전략을 국가 주도로 추진
 - (분배) 최저임금 인상 촉진, 간호·개호¹³⁾·보육 등 공적 사회보장 기본방향 근본적인 재검토, 저출산 대책 등 지속 가능한 전세대형 사회보장제도 구축
- 동일본 대지진을 비롯해 각지의 재해로부터 부흥과 방재, 국토 강인화 등을 추진하고, 현 국제 정세에 기민하게 대응해 국가 안전보장을 확실히 확보
- '경제 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2021' (2021.6.18)*의 2022년 예산편성 방향을 토대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을 감안한 신축성 있는 예산운용
 - *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세출개혁 노력 유지. 사회보장 관련 경비는 고령화 증가분만큼 실질 증가율 설정, 비사회보장 관련 경비는 경제·물가 동향 등을 감안한 세출개혁 지속, 지방 세출은 2021년 지방재정계획 수준을 밑돌지 않도록 유지함
 - 2021년 추경과 2022년 당초 예산을 연계하여 '16개월 예산'의 개념으로 편성
 - 단년도 기준 예산 운용의 폐해 시정을 위해 필요에 따라 새로운 기금 창설 등 조치를 취하며, 증거기반정책수립(EBPM¹⁴⁾) 등을 활용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재정운용

12) 내각부, 「令和4年度予算編成の基本方針」, 2021.12.3. https://www5.cao.go.jp/keizai-shimon/kaigi/cabinet/2021/r4_yosanhensei.pdf, 검색일자: 2022.3.4

13) 일본 고령화에 따른 간병

14) 증거기반정책수립(EBPM(Evidence-based Policy Making))은 통계데이터를 이용한 객관적인 정보에 기반하여 정책을 수립하는 방식

□ FY2022 예산의 주요 내용 (2021.12.24.)¹⁵⁾

- FY2022 예산 편성 방향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 ‘성장 및 분배의 선순환에 의한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 ‘예산의 질 향상’을 중점으로 함
 - (감염 확산 방지) FY2021 1차 추경의 의료체제 강화, 백신접종 지원, 치료제 확보 등 조치를 유지하고 예기치 못한 상황을 대비해 코로나 예비비 5조엔 편성
 - (성장) “과학기술국” 도약을 목표로 과학기술 진흥비(1조 3,788억엔)를 확보하고, 디지털 전원 도시국가 실현, 양자 암호통신 등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함
 - (연구개발) 「과학기술입국(立國)」 측면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과학기술 진흥비를 확보하고, 디지털, 그린, 양자, AI, 우주, 차세대 반도체 등의 연구 개발을 추진하며, 박사과정 학생 지원을 내실화하도록 함
 - (디지털) 「디지털 전원 도시국가 구상*」 실현을 위해서 디지털청에 정보 시스템 관련 예산의 일괄 계상 등 추진에 4,720억엔 지원
 - * 디지털화를 통해 지역 개성을 살린 지방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방에서 국가 전체로의 상향식 성장을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건설을 목표로 하는 계획. 주요 세부 정책으로 ①지자체 디지털 인프라 통일·표준화, ②디지털 인재 육성, ③디지털을 활용한 지역 과제 해결·특색 있는 지역 만들기 추진, ④연령·성별·지리적인 제약 등과 관계없이 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 교육 및 활용 지원으로 구성
 - 지방교부금 1,660억엔(FY2021년도 추경 포함)을 통해 지자체에 의한 디지털기술 구현을 지원
 - (보안기술) 「경제안전보장16」을 위해 양자 암호통신 연구개발 추진과 중요 기술의 관리체제, 사이버 보안 등을 강화하고 관련 싱크탱크 구축을 촉진
 - (교육) 초등학교 고학년의 과학, 수학 등 교과목에 ‘교과중심 교원제’를 도입하고, 교사의 수업 집중 환경을 조성하는 등 과학 교육 강화(174억엔)
- (분배전략) 의료종사자 처우 개선, 인적자원 투자 증대, 근로환경 개선 등 지원

15) 재무성, 令和4年度予算政府案 - 令和4年度予算のポイント, 2021.12.24.,
https://www.mof.go.jp/policy/budget/budger_workflow/budget/fy2022/seifuan2022/index.html

_____, 令和4年度予算及び財政投融资計画の説明, 2022.1.17.,
https://www.mof.go.jp/policy/budget/budger_workflow/budget/fy2022/sy030118.html

내각부, 中長期の経済財政に関する試算, 2022.1.14.,

<https://www5.cao.go.jp/keizai2/keizai-syakai/shisan.html>

16) Economic security

- (의료 종사자) 코로나 의료 대응에 참여하는 의료 기관의 간호직, 개호17), 보육, 유아 교육 등의 종사자 급여 3% 인상
- (인재 육성) 3년간 4,000억엔 규모의 정책 패키지를 위한 인력투자 추진(노동보험 특별회계 1,019억엔)
 - 디지털 등 성장분야를 지원할 인재육성,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 원활한 노동 이동 지원 등을 포함함
- (노동 환경 개선) 하청 왕따 제로 등을 실현하기 위해, 하청 G멘18)을 2배 증원(120→248명)하고, 전국의 하청 중소기업에 대한 공청회 등 감독체제 강화
- (탄력적인 예산19) 「골태방침 2021」²⁰⁾에서 결정된 재정정책의 기초를 지속하며, 동시에 예산의 단년도주의 폐해 시정²¹⁾ 등 예산의 질 향상
 - 사회보장관계비 +약 4,400억엔(고령화에 의한 증가분), 비사회보장관계비 +330억엔(지금까지의 지출개혁 계속)
 - 신규 국채 발행액 감액(FY2021 당초 43.6조엔→FY2022 36.9조엔)

17) 介護, 간병·케어의 일본식 표현

18) 2017년 1월부터 중기청에서 파견하는 거래조사원으로 비밀유지를 전제로 하청 중소 기업자를 방문하여 의견을 취합, 정부 기준 개정에 반영함

19) 이전 연도까지의 예산안에서는 “세출 개혁”이었으나, 올해 예산안에서 “탄력적인 예산”으로 변경함

20) 골태 방침(骨太の方針; Basic Policy on Economic and Fiscal Management and Reform)은 일본 정부가 작성하는 재정이나 경제정책의 기본 운영방침의 통칭

21) ①약 2.1조엔의 신규 국고채무 부담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시기를 평준화하고, 주요 인프라의 수년에 걸친 계획적이고 원활한 정비를 지원함 ②지역 데이터센터 개발 촉진을 위한 기반시설 개발사업이 다년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필요 자금을 사전에 확보(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총 455억엔), ③과학기술과 경제안보 분야는 사업의 성질을 고려하여 기금을 활용하는 등 복수년도에 걸친 지원 실시(경제 안보를 위한 핵심 기술 육성을 위한 신규 기금 조성(약 2,500억엔), 첨단 반도체 생산 인프라 개발을 위한 신규 기금 조성(약 6,200억엔), 백신 개발 강화를 위한 기금(약 7,400억엔))

3. 예산안 내용

가. 세입

- 회계연도 2022년 예산안의 세입규모는 전년 당초 예산 대비 0.9% 증가한 107조 5,964억엔으로 전망
 - (조세 및 인지수입²²⁾) 전년 당초 예산 57조 4,480억엔 대비 13.6% 증가한 65조 2,350억엔으로 전망되며, GDP 대비 조세 및 인지수입 비율은 11.6%로 전망 (<표 3> 참고)
 - 전년 당초 예산 대비 법인세는 48.2% 감소하였으며, 국제관광여객세는 300억 엔에서 90억엔으로 70% 감소하여 가장 큰 감소율을 보였음(<표 4> 참고)
 - 석유가스세와 상속세는 전년 당초 예산 대비 각각 25%, 17.5% 증가하여 높은 증가율을 보였음(석유가스세 40억엔→50억엔, 상속세 2조2,290억엔→2조6,190억엔)
 - (기타수입) 기타수입은 일반회계 통상분 기준 전년 당초 예산 5조 5,647억엔 대비 2.3% 감소한 5조 4,354억엔으로 전망
 - (국채발행액) 국채발행액은 전년 당초예산 43조 5,970억엔 대비 15.3% 감소한 36조 9,260억엔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전체 세출 대비 국채의존도는 전년 당초 예산과 비교하여 6.6%p 감소한 34.3%로 전망

22) 재무성, 「令和4年度租税及び印紙收入概算」, 2021.12.24.

<표 3> FY2022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단위 : 억엔, %)

구 분		FY2021 당초(A)	FY2022 정부안(B) ¹⁾	증감액 (B-A)	증감율 (B/A-1)
세 입	1. 조세 및 인지수입	574,480	652,350	77,870	13.6
	2. 기타 수입	55,647	54,354	-1,293	-2.3
	3. 공채금(세출과 세수등과의 차이)	435,970	369,260	-66,710	-15.3
	(1) 채무상환비 상당분(교부 국 채분 제외)	147,317	156,325	9,008	6.1
	(2) 이자지급비용 상당분	85,036	82,472	-2,563	-3.0
	(3) 정책적지출에 의한 적자(기 초적재정수지적자) 상당분	203,617	130,462	-73,155	-35.9
합계		1,066,097	1,075,964	9,867	0.9
세 출	1. 일반세출	669,023	673,746	4,723	0.7
	(1) 사회보장관계비	358,343	362,735	4,393	1.2
	(2) 사회보장관계비 외	260,681	261,011	330	0.1
	(3) 신형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책 예비비	50,000	50,000	-	순증
	2. 지방교부세교부금 등	159,489	158,825	-664	-0.4
	3. 국채비	237,585	243,393	5,808	2.4
	(1) 중 채무상환비(교부 국채 제외)	147,317	156,325	9,008	6.1
	(2) 중 이자지급비용	85,036	82,472	-2,563	-3.0
합계		1,066,097	1,075,964	9,867	0.9

주: 1) 「사회보장관계비」, 「사회보장관계비 외」 FY2021예산은 FY2022 예산과 비교대조를 위해 재계산

2) 계수는 반올림하여 끝수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공채금 분류는 기초적재정수지 및 재정수지 관점으로 분류한 것으로, 공채금에 의한 수입이 직접 채무상환비 및 이자지급비용에 충당된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분」으로 표현

자료: 재무성, 「令和4年度予算のポイント」, 2021.12.24.

_____, 「令和4年度一般會計歳入歳出概算」, 2021.12.24.

<표 4> FY2022 일반회계 조세 및 인지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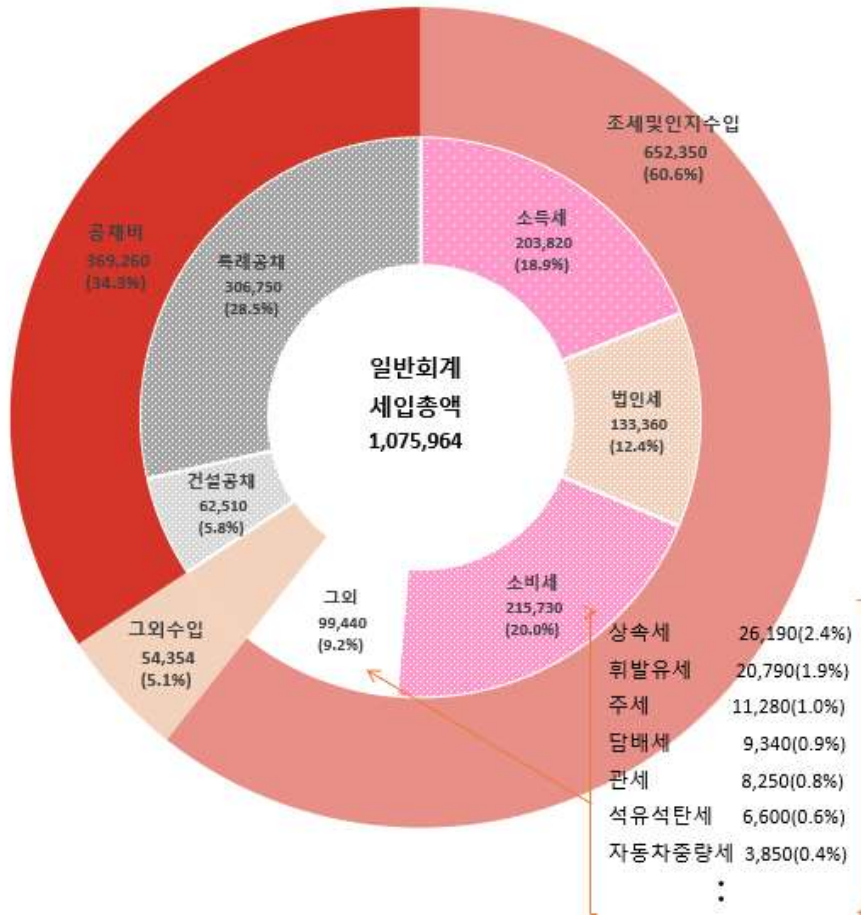
(단위: 억엔, %)

세목 (일반회계)	FY2021		FY2022	전년대비			
	(당초)예산	추경후	예산안	(당초)예산대비		추경후예산대비	
	(A)	(B)	(C)	(C-A)	증감률	(C-B)	증감률
원천소득세	157,440	167,390	170,840	13,400	8.5	3,450	2.0
신고소득세	29,230	32,880	32,980	3,750	12.8	100	0.3
(소득세 계)	(-186,670)	(-200,270)	(-203,820)	(-17,150)	(9.2)	(-3,550)	(1.7)
법인세	89,970	128,870	133,360	-43,390	-48.2	4,490	3.4
상속세	22,290	25,550	26,190	3,900	17.5	640	2.4
소비세	202,840	211,080	215,730	12,890	6.4	4,650	2.2
주세	11,760	11,760	11,280	-480	-4.1	-480	-4.3
담배세	9,120	9,120	9,340	220	2.4	220	2.4
휘발유세	20,700	21,280	20,790	90	0.4	-490	-2.4
석유가스세	40	40	50	10	25.0	10	20.0
항공기연료세	370	370	340	-30	-8.1	-30	-8.8
석유석탄세	6,060	6,060	6,600	540	8.9	540	8.2
전원개발촉진세	3,050	3,050	3,130	80	2.6	80	2.6
자동차중량세	3,820	3,820	3,850	30	0.8	30	0.8
국제관광여행객세	300	40	90	-210	-70.0	50	55.6
관세	8,460	8,460	8,250	-210	-2.5	-210	-2.5
톤세 ¹⁾	90	90	90	0	0.0	0	0.0
인지수입	8,940	8,940	9,940	500	5.6	500	5.0
합계	574,480	638,800	652,350	77,870	13.6	13,550	2.1

주: 1) 외국무역선 입항 시 무역선의 톤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으로 납부
 자료: 재무성, 「令和4年度租税及び印紙收入概算」, 2021.12.24.

[그림 2] FY2021 일반회계 세입 구성

(단위: 억엔, %)



자료: 재무성, 「令和4年度予算のポイント」, p10, 2021.12.24.

나. 세출²³⁾

- (일반회계) 회계연도 2022년 예산안의 세출 규모는 전년 당초 예산 106조 6,097억엔 대비 0.9% 증가한 107조 5,964억엔으로 편성됨(<표 3> 참고)
 - (일반세출) 전년대비 0.7% 증가한 67조 3,746억엔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년 당초 예산과 동일하게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대책 예비비 5조엔 편성
 - (국채비) 전년대비 2.4% 증가한 24조 3,393억엔 편성
 - (지방교부세교부금) 전년 당초예산 15조 9,489억엔 대비 0.4% 감소한 15조 8,825억엔 편성
- (특별회계) 특별회계 세출 총액은 467.3조엔으로 회계 간 이전을 제외한 순계액은 218.5조엔 규모
 - 세출 순계액의 대부분은 국채상환비²⁴⁾(92.9조엔), 사회보장급부비²⁵⁾(73.6조엔), 재정용자 자금으로 편입(재투채²⁶⁾에 의한 자금조달(25조엔), 지방교부세교부금(19.8조엔) 등에 사용되며 이를 제외한 금액은 7.3조엔
 - 동일본대지진부흥경비 0.7조엔을 제외하면 총 6.6조엔이고, 이 중 50%는 보험사업, 20%는 에너지대책에 사용되며, 재원은 일반회계 편입이 1.3조엔(특정재원의 일반회계 경유 편입을 포함), 나머지는 그 외 세입(보험료 등)으로 조달
- FY2022 주요 분야별 일반회계 세출에서 사회보장관계비의 전년 당초 예산 대비 증가율이 1.2%로 가장 높았으며, 연금관계비의 전년 대비 감소율(-15.7%)이 가장 높았음(<표 5> 참고)

23) 재무성, 「令和4年度予算のポイント」, 2021.12.24.

_____, 「令和4年度一般會計歳入歳出概算」, 2021.12.24.

24) 국채의 상환이나 이자의 지불에 필요한 비용

25) 연금이나 건강 보험 급여비 등 법률에 근거하는 사회 보장 자체에 드는 비용

26) 財投債, 재정 용자 자금의 운용재원에 충당하기 위한 국채. 재투채 발행 수입은 '재정용자특별회계 재정용자자금 계정'의 세입의 일부가 되며, 세출로 재정용자 자금으로 이월됨. 발행한 도액은 국회의 의결을 받으며 상품성 또한 일반 국채와 동일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이 재정용자 자금의 대부 재원이 되는 동시에 상환이 재정용자자금의 대출 회수금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일반회계의 세출 재원이 되고, 상환이 조세 등으로 충당되는 일반 국채와는 다름. 또한 재투채는 국민계정의 일반정부 부채로 분류되지 않으며 국가 및 지방의 장기 채무 잔고에도 포함되지 않음

- (사회보장관계비) 일반회계 세출 중 가장 큰 비중(33.7%)을 차지하는 사회보장 관계비는 전년 대비 4,393억엔(1.2%) 증가한 36조 2,735억엔 규모(<표 5>, [그림 6] 참고)
- (공공사업관계비) 일반회계 세출 중 5.6%를 차지하는 공공사업관계비는 전년 대비 542억엔 증가한 5조 575억엔 규모
- (문교 및 과학진흥비) 일반회계 세출 중 5.0%를 차지하는 문교 및 과학진흥비는 전년 대비 24억엔 감소한 5조 3,901억엔으로 편성
 - 이 중 과학기술진흥비는 전년 대비 150억엔(1.3%) 증가한 1조 3,788억엔 규모
- (방위관계비) 일반회계 세출 중 5.0%를 차지하는 방위관계비는 전년 대비 542억엔(1.0%) 증가한 5조 3,687억엔 규모
- (코로나바이러스 대책예비비) 예기치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상황 변화에 대비하여 FY2022에도 코로나 예비비 5조엔을 편성

<표 5> FY2022 주요 분야별 일반회계 세출 내역 (단위: 억엔, %)

구분	FY2021 ¹⁾	FY2022	증감액	증감률
	(A)	(B)	(B-A)	(%)
일반세출²⁾	669,023	673,746	4,723	0.7
사회보장관계비	358,343	362,735	4,393	1.2
문교 및 과학진흥비	53,925	53,901	-24	0.0
(과학기술진흥비)	13,638	13,788	150	1.1
연금관계비	1,450	1,221	-228	-15.7
방위관계비	53,145	53,687	542	1.0
공공사업관계비	60,549	60,575	26	0.0
경제협력비	5,108	5,105	-3	-0.1
ODA	5,599	5,612	12	0.2
중소기업대책비	1,726	1,713	-13	-0.8
에너지대책비	8,891	8,756	-135	-1.5
식품안정공급관계비	12,723	12,701	-21	-0.2
기타 경비	58,164	58,350	186	0.3
예비비	5,000	5,000	-	-
신형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대책예비비	50,000	50,000	-	-
국채비	237,585	243,393	5,808	2.4
지방교부세교부금	159,489	158,825	-664	-0.4
합계³⁾	1,066,097	1,075,964	9,867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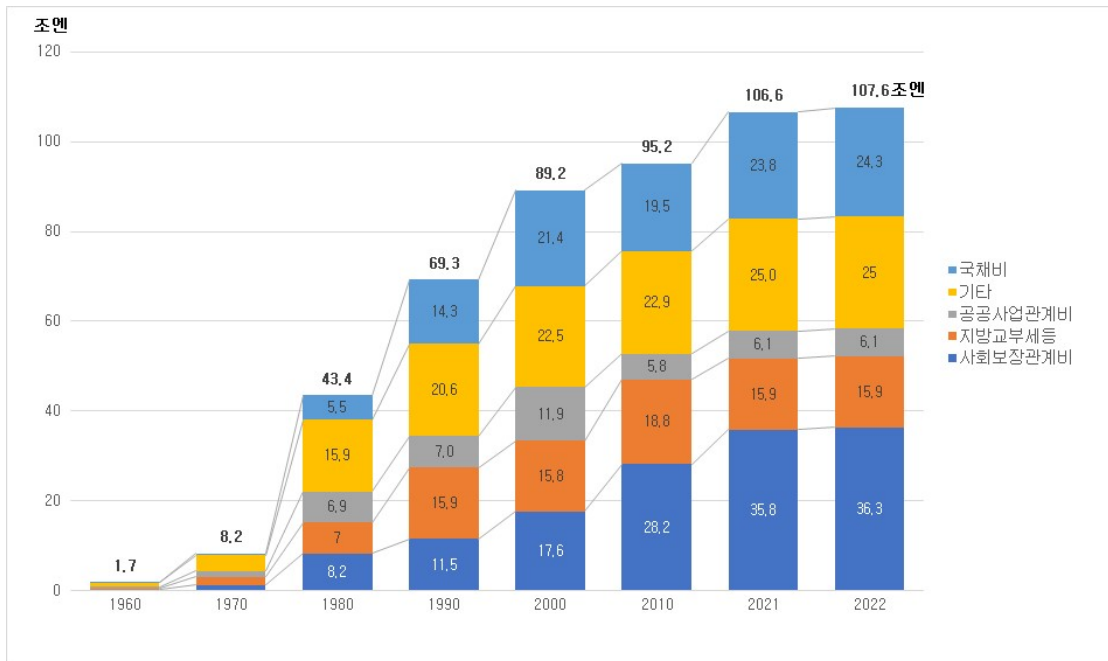
주: 1) FY2021 예산은 FY2022 예산과 비교·대조를 위해 재조합함

2) 일반세출은 일반회계 세출총액에서 국채비와 지방교부세교부금을 제외한 것을 의미

3) 계수는 반올림하여 끝수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재무성, 「令和4年度予算のポイント」, 2021.12.24.

[그림 4] 일반회계 주요경비 추이 (단위: 조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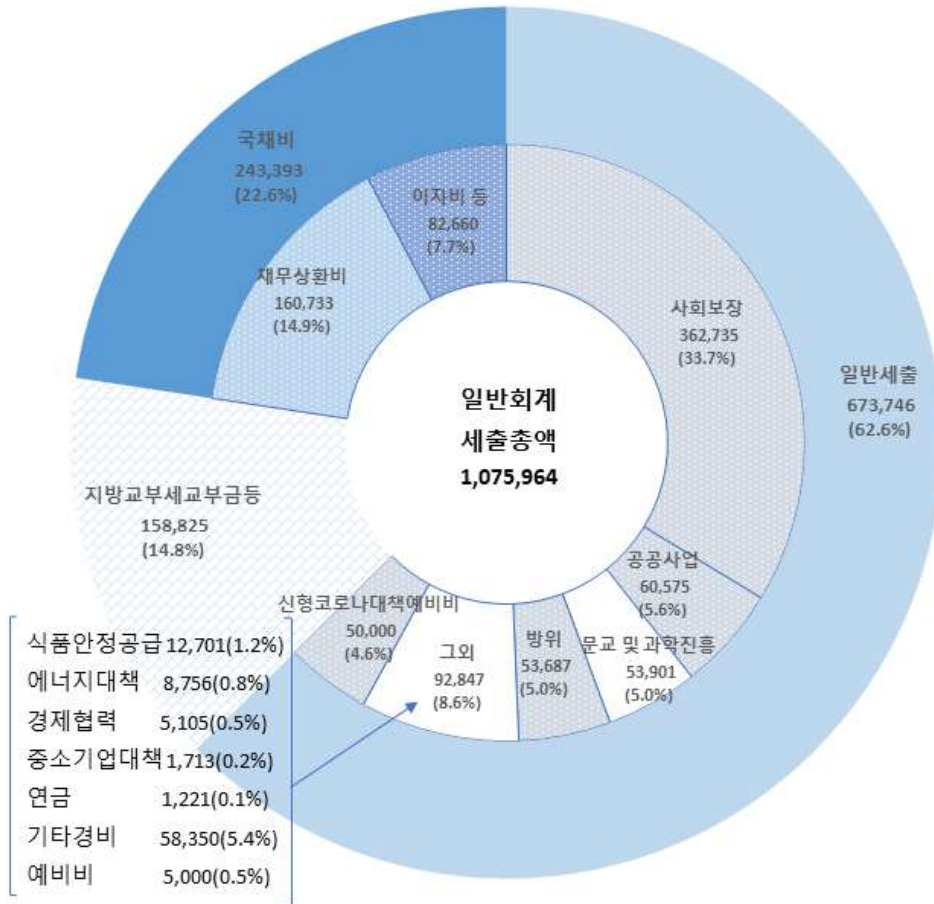


주: 2010년까지는 결산, 2021년 당초 예산, 2022년 정부안

자료: 재무성, 「我が國の財政事情(令和4年度予算政府案)」, 2021.12

[그림 5] FY2022 일반회계 세출 구성

(단위: 억엔, %)



자료: 재무성, 「令和4年度予算のポイント」, p10, 2021.12.24.

4. 주요 재정정책

가. 경제성장

- (기업) 거래 적정화 대책과 사업재생·사업승계 지원에 주요 예산을 편성하고, 생산성 향상 지원을 위한 디지털화 등 현재 중소기업의 경영과제 대응 지원
 - 중소기업 대책비는 전년 당초 예산에 비하여 13억엔 감소한 1,713억엔 규모로 편성하고, 중소기업의 대출 동향 등을 기초로 정책 금융에 필요한 경비 54억엔 감액(다른 정책 경비는 41억엔 증가)
 - 거래 적정화 대책으로 하청 왕따 제로 등을 위해 하청 G멘²⁷⁾을 2배 증원(120 → 248명)²⁸⁾
 - 생산성 향상 지원 측면에서 성장형 중소기업 등 연구개발 지원 사업에 104.9억엔을 지원하고, 사업자 간 연계강화에 10.2억엔 지원
 - (연구개발) 산학관 제휴를 통한 중소기업의 고도 기반기술 및 서비스 모델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성과 교류 및 판로 확대 기회 제공
 - (연계강화) 제조업 등 중소기업·소규모 사업자 간 데이터 공유와 연계 강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과 생산성 향상 프로젝트에 지원
- (에너지 대책) 에너지 절약 및 재생에너지 도입, 에너지 안정적 확보 등을 추진
 - ‘제6차 에너지 기본계획’²⁹⁾ 실현을 위해 재생가능 에너지 도입을 최대화하고,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안정적 확보에 힘써 국민 부담을 줄이도록 함
 - 재생가능에너지 혹은 에너지 절약 기술개발·설비 등의 도입, 석유·천연가스 등 자원개발, 석유비축의 유지 및 생산·유통 합리화, 원자력 방재 정비 등을 추진

27) 2017년 1월부터 중기청에서 파견하는 거래조사원으로 비밀유지를 전제로 대기업 등 발주처와 수주를 맡은 하청 중소기업 등 사이에 부당한 하도급 거래 여부를 감시하고, 이를 취합하여 정부 기준 개정에 반영함(일본 중소기업청, 取引調査員(下請Gメン)による訪問調査について, <https://www.chusho.meti.go.jp/keiei/torihiki/Gmenhoumon.htm>, 검색일자: 2022.4.15)

28) 織研新聞社, 経産省 下請け取引適正化促進へ専門調査員を大幅増員, <https://senken.co.jp/posts/meti-220407>, 검색일자: 2022.4.15

29) 2050년 탄소중립 달성(2020년10월 표명), 2030년 46% 삭감 더 나아가 50%로 새롭게 설정한 목표(2021년 4월 표명)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 일본 에너지 안정 공급,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한 조치로 구성됨(2021년 10월 22일 각의 결정)

- (농림·수산) 농림·수산업 강화를 위해 수출 지원, 지속가능한 식량 시스템 구축, 수산업 지원 등 정책을 시행할 예정
 - 농림·수산물 수출 5조엔 달성을 목표로 수출 중점 품목과 수출 대상 국가·지역을 선정·지원하고, 관민 제휴를 통한 판로 개척, 수출 산지·사업자 지원 등 추진(107.9억엔)
 - 지속가능한 식량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탈탄소 등 환경부담 감소에 이바지하는 기반기술을 개발하고(34.7억엔), 화학 농약·비료 사용량 저감(26.5억엔) 등 추진
 - 수자원 관리 어업자의 경영 안정 대책(201.9억엔) 등을 실시하고, 어선어업이나 양식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20억엔), 외국 어선의 불법 조업 단속을 실시함
- (교육·과학기술) 과학기술국 달성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과 박사과정 학생 등 인재 육성, 초등학생 산수 등 교과외 교원 집중 향상 지원, 대학개혁 등을 계획
 - (중점 연구) 과학기술국 도약을 위해 과학기술진흥에 1조 3,788억엔을 편성하고, 디지털, 녹색 투자, AI, 우주, 차세대 반도체 등의 연구개발을 추진
 - 양자 컴퓨터와 양자 기술 활용 등 연구개발에 37억엔 지원
 - AI 등 활용, 데이터 플랫폼 연계를 통한 연구데이터 공유 및 구동 10억엔
 - 차세대 반도체 개발 거점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에 9억엔 편성
 - 우주·항공 분야 대형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계획을 위한 연구개발 등에 1,558억엔 투자
 - (연구력 향상) 박사과정 학생 처우와 연구환경 개선에 34억엔 지원하고, 인재 육성(전년 대비 약 1천명 확충) 및 연구비 지원에 2,377억엔 편성
 - (의무교육) 초등학교 고학년의 이과·산수 등 교과외 교과담임제 추진을 하고, 교원이 수업 등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보습, 학습 지도원 배치 등 외부 자원 활용(174억엔)
 - 초등·중학교에서 디지털 교과서 활용 시 효과와 영향 등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고, 온라인 교육 시스템인 공공 CBT플랫폼³⁰⁾ 구축을 추진

30) 문부과학성에서 학생 1인 1대 단말기를 활용하여 학교나 가정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문제를 통해 온라인 학습·평가할 수 있도록 함

- (고등교육) 2020년부터 고등교육 무상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있으며, 국립대학 법인 운영비 교부금 1조 786억엔을 편성하고, 연구 실적 등 개혁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 제공

나. 안전·재해 예방 및 사회보장

- (외교·방위) 전략적 외교를 위한 증원 등 체제 보강과 대외 홍보를 강화하고, 코로나 대응과 기후변화 대책을 중점으로 ODA를 지원하며, 국제 정세를 감안하여 처음으로 5.4조엔 방위 예산 확보
 - (공적개발원조(ODA))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기후변화 대책에 관한 개발·협력, '자유롭게 열린 인도·태평양'(Free and Open Indo-Pacific)³¹⁾ 구체화를 위한 협력에 중점적으로 예산 배분(일반회계 ODA 예산 5,612억엔, +12억엔)
 - (외교) 전략 외교를 추진하기 위해 일본 대외 홍보 강화 511억엔(전년 485억엔), 대사관·영사 사무실 신설과 외무성 증원(74명 순증, 정원 6,500명 초과) 등 추진
 - (방위) 주변국 군사력 강화와 일·미동맹에서 일본의 역할 확대 등 요구를 고려하고, 미사일·어뢰 등 중요 무기 확보, 우주·사이버·전자파 등 새로운 영역 위협대응 등을 위해 처음으로 5.4조엔을 초과하는 5조 4,005억엔 방위예산 편성
 - (경찰) 사이버 위협 대처를 위해 사이버대응 조직을 신설하는 등 체제 정비(37.9억엔), 국제 테러 대비와 대규모 재해 등 긴급 사태 대응(62억엔), 고령자 및 어린이 교통사고 비율 증가에 교통안전 확보 지원(204.4억엔)
- (사회보장)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지속하며, 2022년 진료보수·약가 개정 등과 간호, 장애 복지, 보육 등 처우 개선을 계획
 - 전년 진료보수·약가 개정 등과 함께 사회보장관계비는 고령화에 의한 증가분만 허용하도록 한 방침을 꾸준히 달성

31) 인도양과 태평양을 통해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더욱 연결시키고, 두 해양 중심에 위치한 ASEAN과 지역 전체의 안정과 번영을 촉진하고자하는 전략으로 법치주의, 항해의 자유, 자유무역 등을 보급·정착시키고, 인프라 정비와 경제 파트너십 강화 등을 통해 경제번영을 추구하며, 인도적 지원과 테러·해적 대책 등을 통해 평화와 안정을 확보 등을 추진(재무성, 自由で開かれたインド太平洋 (Free and Open Indo-Pacific) , <https://www.mofa.go.jp/files/000430631.pdf>, 검색일자: 2022.3.28.)

- (진료보수) 간호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불임치료의 보험 적용, 특정 조건 만족 시 동일 처방전 반복 사용 허용(약 처방만을 위한 진료 감소 목적)하여 국민 보험료 부담을 억제(진료보수 개정률 0.43%, 국비 292억엔)
 - 신종 코로나 의료 대응 등 관련 의료기관 간호 종사자, 개호·장애 복지 직원, 보육교사 등에 대해 2019년 10월 이후 수입 3% 인상 조치
 - 불임치료 보험적용 120억엔, 불임치료 의약품비 54억엔 지원
- (약가 개정) 의약품의 시장 가격이 낮아짐에 따라 실제 가격(실제 매매 가격)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약가 개정률 -1.37%로 설정(국비 1,570억엔 감소)
- (고용 보험) 실업보험 등 국고 부담에 대해 현행 부담비율을 유지하고, 일반회계를 임의 이월할 수 있는 구조로 변경하며, 보험료율은 단계적으로 인상, 고용사정이나 고용보험의 재정상황에 따라 국고 부담 비율을 책정
- (코로나 대응) 2021년 추경과 2022년 예산을 일체화하여 16개월 예산으로 운영하며, 보건소 인원·체제 강화 등 6.4억엔, 국립국제의료센터 지원 14.3억엔 등

다. 지역 발전·창생³²⁾

- (공공사업) 소프트웨어 측면의 방재·감재 대책을 강화하고, 노후화 시설에 신기술을 활용하며, 인구 감소에 대응한 광역 집약적 네트워크 등을 추진
 - 방재·감재를 위해 제도·운영 등 소프트웨어를 강화, 노후화 시설에 신기술의 활용을 주요 방향으로 방재·감재, 국토 강인화 관련 예산으로 3조 8,736억엔(전년 대비 1,144억엔 증액) 편성
 - 인구 감소에 대응한 광역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광역 수준의 집약 시설 정비 설치 등에 인센티브를 주는 ‘광역 콤팩트 플러스 네트워크’의 추진, 인프라 정비를 통해 생산성 향상·성장력 강화
 -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에 영향을 받은 관광업, 지역 대중교통, 항공 분야에 디

32) 수도권 인구 집중에 따른 지역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특성화 추진, 경제발전 지원, 청년 고용 기회 증대 등을 통해 살기좋은 지역을 만들어 장기적으로 활력있는 일본 사회를 유지해나가고자 함(거리·사람·일자리 창생기본방침 2021(まちひとしごと創生基本方針), 2021.6.18)

지털전환 프로그램 DX(Digital transformation)추진, 성장 투자, 경영 지속가능성 확보 등에 중점적으로 지원

- 단년도 기준 예산 운용의 폐해³³⁾에 따른 연계성 부족과 건설 현장의 생산성 현상을 위해 신규 국고 채무 부담 약 2.1조엔을 통해 시공 시기의 평준화·시공 효율화를 도모하고, 여러 해에 걸친 중요 인프라의 계획적인 정비를 지원

□ (지방활성화) 지방공공단체 정보 시스템 표준화를 추진하고, 지방 활성화 정책을 계속적으로 실행

- 지방공공단체가 개별적으로 발주·유지·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국가 기준 표준화와 행정 클라우드³⁴⁾로의 이전을 계속 추진(4.7억엔)
- 도시로부터 지방으로의 인재 이주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생활거점을 옮긴 '지역 부흥 협력대원'³⁵⁾이 지역 브랜드나 제품개발·판매, 주민지원 등 지역 협력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고 해당 지역 정주·정착을 도모함(2.4억엔)

- 2020년 5,560명에서 2024년 8천명 목표

□ (지방재정) 2021년 골태방침을 근거로 국가 일반세출 기조에 맞추면서 안정적 재정운영에 필요한 일반재원을 2021년 수준을 밑돌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동 수준으로 확보

□ (부흥) 「제 2기 부흥·창생 기간³⁶⁾」 두 번째 해로 부흥시책을 착실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5,790억엔 계상

- 재해 피해자 대상 의료케어, 커뮤니티 형성 등 종합적인 지원에 11억엔을 편성하고, 후쿠시마 장기 피난자 지원으로 조기 귀환 및 이주·정주 지원 701억엔

33) 예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적용으로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 세출은 금년도 세입으로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금년도의 세출을 다음 연도 세입으로 충당하거나, 과거의 세입을 올해 세출로 충당하는 것을 막음. 그러나 이러한 단년도주의는 예산 집행의 유연성 및 연속성이 낮아 차년도 이월 등 예외를 인정함

34) 디지털 정부 실행 계획(2020년 12월 25일 각의 결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정보 시스템에 클라우드(인터넷 가상 공간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운용)를 활용한 디지털 행정서비스 추진

35) 인구가 적은 지역으로의 인구 이동 및 정착을 위해 이주민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총무성 기준 대원 1명당 480만엔 상한(지자체별로 다름)으로 재정 지원하고, 임기는 1년 이상 3년 미만

36)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의 기본방침」을 기본으로 '재해지역의 자립으로 지방 창생 모델이 될 수 있는 부흥을 실현해 나간다'는 '제1기 복구·창생기간(2016년~2020년)'의 이념을 계승해 실현을 위한 노력을 더 앞으로 나가야 할 시점이라는 의미에서 2021년도부터 5년간을 '제2기 부흥·교정 기간'으로 규정

- 신규 사업으로 동일본 대지진 부흥의 '창조적 부흥의 핵심 거점'으로 국제 교육 연구 센터를 신설하기 위해 25억엔 편성

라. 예산 효율화 및 질 향상

- 예산편성 PDCA³⁷⁾ 사이클을 통해 국회 지적사항, 예산집행 조사, 정책평가 결과를 반영
 - (지적사항 반영) 국회 결산 심의 내용과 회계감사원의 지적 등을 반영
 - 예시로 국회 결산 지적사항인 취업이 어려운 세대의 정규 고용 지원 사업인 헬로 워크의 인원을 증원(1억엔)
 - 회계감사원의 중산간 지역 등 직접 지불 교부금에 대한 지적을 반영하여 제도 개정에 따른 교부 면적 감소분을 반영(-3억엔)
 - 필요성이 크지 않은 고액 예산 사업의 결산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에 반영(석유관리 등 위탁비 - 6억엔)
 - (예산집행 조사) 2021년 예산집행의 필요성·유효성·효율성 기준 조사(39건) 결과를 반영함
 - (예시) CO₂ 배출감소 대책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실증 사업을 폐지(-66억엔)
 - (정책결과 반영) 각 행정기관의 정책 평가 결과를 예산 편성 시 반영
 - (예시) '중소기업·소규모 사업자 등에 대한 근로방식 개혁 사업'의 근로방식 개혁추진 지원센터의 컨설팅 기능을 전국 센터에서 도도부현 센터로 집약화·중점화하여 중소기업 지원 강화 및 예산 효율화 도모(-23억엔)
- (디지털 추진) 각 부처의 LAN·네트워크 환경에서 부처 간 네트워크(GSS: Government solution service)를 구축하여 고속·대용량의 데이터를 저렴한 비용으로 공유하도록 함
 - 등기 정보 데이터베이스 거점을 현재 4개에서 1개로 집약하여 기기 임차료 및 보수비용, 운용 지원 및 유지보수 경비를 절감(2025년부터 5년간 24억엔 감소)
- (단년도 기준 예산 운용의 폐해 시정) 공공사업의 국고채무 부담을 신규로 2.1조엔 설정하여 기간 평준화를 도모하고, 여러 년도에 걸친 중요 인프라의 계획적인 실행을 가능케 함

37) PDCA(Plan - Do - Check - Act)는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예산 관리 방법으로 계획(Plan)하고 계획한 대로 집행(Do)하며 피드백(Check& Act)을 반영하는 것을 뜻함. 피드백 단계에서 국회심의결산, 예산집행조사, 정책평가 등을 반영

- 다년도 집행 사업인 데이터센터 지방 입지 촉진을 위한 기반정비사업 실시를 위해 국고채무 부담행위를 활용하여 미리 필요한 사업금액을 확보함(2022~2025년 455억엔)
- 경제안전보장 중요기술 육성을 위한 기금 신설 약 2,500억엔, 첨단 반도체 생산 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기금 신설 약 6,200억엔, 백신개발·생산을 위한 기금 활용 (약 7,400억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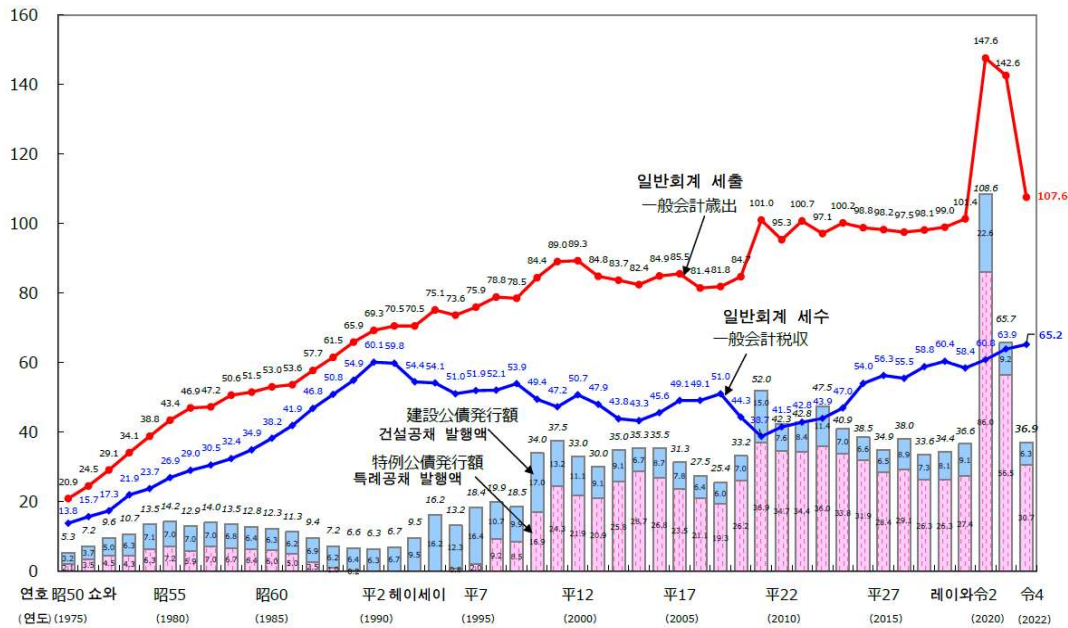
[참고 1] 일본 보통국채³⁸⁾

- 일본의 보통국채 종류는 공공사업비, 출자금 및 대출금 재원 목적의 '건설공채'와 공공사업비 외 목적의 '특례공채', 이외 '부흥채', '차환채'가 있음
 - (건설공채) 재정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공공사업비, 출자금 및 대출금 재원을 목적으로 국회 의결을 거친 금액 범위내에서 발행하는 국채
 - 연도별 상환 예정 금액을 제시하고 상환 방법·상환 기한을 밝혀 상환계획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 * § 일본 재정법 제4조 제1항에서는 '나라의 세출은 공채 또는 차입금 이외의 세입을 그 재원으로 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나, 단서 조항으로 공공사업비, 출자금 및 대출금의 재원에 대해서는 국회의 의결을 거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공채를 발행하거나 차입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특례공채) 건설공채를 발행해도 여전히 세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공공사업비 이외의 세출 목적으로 특별법에 근거하여 국회 의결을 거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발행하는 국채로 그 성질에서 "적자 국채"라고 불리기도 함
 - 국회 심의에서 건설 공채와 마찬가지로 상환계획표를 제출
 - (부흥채)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의 부흥을 위한 시책을 실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원 확보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근거하여 2011년부터 2025년까지 실시하는 동일본 대지진 복구·부흥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발행함
 - 각 연도 예산을 국회 의결을 거친 금액 범위 내에서 발행함
 - 다른 공채 상환과는 달리 매년도 예상되는 정부 보유 주식처분 소득, 부흥 특별세 수입을 순차적으로 상환에 사용하고 2037년까지 상환하도록 함
 - (차환채) 보통국채의 경우 60년 상환 규칙에 근거하여 상환액의 일부를 상환하기 위한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
- 보통국채 이외 국채에는 주로 재정융자 대출에서 회수금으로 조달되는 재정투융자특별회계국채와 출자·출연 국채, 교부국채 등이 있음

38) 출처: 일본 재무성, 赤字國債と建設國債の違いを教えてください,
<https://www.mof.go.jp/faq/budget/01aa.htm>, 검색일자: 2022.4.12

[그림 7] 일반회계 세수·세출총액 및 공채 발행액 추이

(단위: 조엔)



주: 1) 2020년까지는 결산, 2021년은 추경 후 예산, 2022년은 예산안

- 2) 공채발행액은 1990년은 결프지역 재원조달을 위한 임시특별공채, 1994년 소비세율 3%에서 5% 인상에 앞서 행한 감세에 의한 조세수입 감소를 보충하기 위한 감세특별공채, 2011년도는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의 부흥을 위해 실시하는 시책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부흥채, 2012년 및 2013년은 기초연금국고부담 1/2 실현 재원 조달을 위한 연금특별공채를 제외함

자료: 재무성, 我が國の財政事情, 2021.12, 3쪽, 검색일자: 2022.4.18